

# 목포뮤직플레이, 음악의 도시로 위상 높이며 성료

'목포뮤직플레이'가 가을의 추억을 선물하며 대단원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갯바위문화타운 일원에서 경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목포의 가을을 음악으로 물들였다.

시는 이난영 여사, 남진, 김경호 등 걸출한 가수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는 목포를 음악의 도시매가로 브랜드마케팅하기 위해 목포뮤직플레이를 개최했다.

프로그램 구성에도 이와 같은 특성을 부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난영 여사의 딸이자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인 '김시스터즈'의 리더 김숙자씨의 공연으로 개막을 알렸다. 김숙자씨는 목포뮤직플레이 공연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미국에서 목포를 찾아 어머니의 대표곡인 '목포의 눈물'과 '다방의 푸른꿈'을 열창하며 감동의 눈물을 보였다. 목포출신 남

진, 김경호도 열정적인 무대로 목포뮤직플레이를 빛냈다.

목포뮤직플레이는 코로나로 자유롭지 못했던 야외공연에 대한 갈증도 다비치, 로꼬, 해양경찰관현악단(비와이), 옥상달빛, 카이, 거미, 경서 등 가수들의 무대로 해소했다.

목포뮤직플레이의 전국오디션경연대회는 전국 최초로 오디션을 축제에 접목시켰다.

서울·경기권 278개팀, 전라도160개팀, 경상도 51개팀, 충청권 37개팀 등 전국에서 총 546개팀이 참여를 신청한 가운데 1·2차 예선을 거친 20개팀이 목포뮤직플레이 현장에서 진행된 준결승과 결승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80%)과 국민심사단(20%)의 심사 결과 실버스톤, OTB, 스토리텔러, 1600, SEMA 등이 TOP5로 선정됐다. TOP5는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기획사에 연습생으로 등록되는 혜택이 제공된다.

/박성태 기자



'목포뮤직플레이'가 가을의 추억을 선물하며 대단원을 마무리했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갯바위문화타운 일원에서 경연,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목포의 가을을 음악으로 물들였다. /목포시 제공

## 무안, 어린이 비만 예방 영양교실 운영 '큰 호응'

무안군(군수 김산)이 미취학 아동의 비만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up! 체지방 down! 어린이 비만예방 영양교실을 운영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 비만예방 영양교실은 총 10회에 걸쳐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에 운영되고 있다.

남양·오룡 유치원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균형잡힌 영양 간식 만들기, 건강한 채소 요리 만들기 등 체험교실로 구성됐다.

앞으로도 군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행복한 무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성장기에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 강진군, 지방소멸 대응 방안 논의

강진군은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KT 전남본부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행정에 4차산업혁명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친환경, ▲안전·행복, ▲관광·첨단, ▲교육·행정 4개 분야로 나눠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강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도시 분야에서는 AI방역로봇 도입, 실내외 공기질 관리, 자원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강진군의 각종 악취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안전·행복도시 분야에서는 방범비상벨, 어르신 돌봄케어 서비스, 생활인구 솔루션 등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첨단도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 패턴을 분석하고 관광상품 개발 시 이를 적용하며, 교육·행정도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 활용방안, 공인알림문자서비스, 지자체 TV 등 민원인과 행정상편의를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4가지 분야는 모두 강진군에 거주하는 정주민, 관광객 등을 포함한 생활인구 구분 없이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정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은 물론 생활인구의 군정 정보 획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4차산업 혁명의 도입은 민원인 편의와 인구를 늘리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방안을 접목할 수 있도록 주요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구5만 달성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운재 기자

## 신안 퍼플섬, 개장이래 1일 방문객 최다

보라색의 성지 퍼플섬에 아스타꽃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일 퍼플섬을 찾은 관광객은 개장이래 가장 많은 8천여 명이 찾았다.

개천절이 낀 황금 연휴에 날씨가 좋아 수도권과 경상도, 충청도 등 거리가 멀어 망설이던 관광객이 줄을 이었다.

3만3천㎡에 조성된 아스타꽃이

가을 햇살과 푸른 하늘, 바다, 관광객의 웃고 어우러져 마치 섬 전체가 보라색 물감을 풀어놓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는 평이다.

이번 축제는 가을 먹거리의 대명사 왕새우 축제가 병행돼 미식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돋우었다.

퍼플섬은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은 가봐야 하는 곳으로 이미 입소문이 난 상태이다.

가족, 연인, 각종 모임에서 보라색 옷을 맞춰 입고 퍼플섬을 방문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유행이 됐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퍼플섬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보라색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며 "보라색을 좋아하는 전 세계인을 퍼플섬으로 초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대규모 버들마편 초 단지를 추가로 반월도 일원에 조성해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꾸밀 계획이다.

/박성태 기자

## 영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시행

### 5천만 원 대출한도 3년간 대출금리 연 3% 지원

영암군이 '2022년 하반기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4일부터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요건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 내

에서, 군은 융자금에 대해 3년 동안 연 3%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사업대상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3% 이율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류접수일 기준 대출실행 중이거나 3개월 이내 대출 예정

인 경우 구비서류 작성 및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상담 후에, 10월 21일까지 투자경제과(지역경제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수수료를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사업과 병행해 신청이 가능하다.

/윤규진 기자

## 함평군 농촌지도자회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농촌지도자 함평군연합회(회장 이승환)가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은 "농촌지도자 함평군연합회 회원 50여 명이 지난 29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에서 영농폐기물 모으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각 읍면 지도자회에서 미리 수거한 영농폐기물을 한 데 모아 분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일괄 수거해 처리될 예정이다.

농촌지도자회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영농폐기물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천780kg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용운 기자

**Sunshine GWANGYANG**

**행복도시 광양**

아이 양육하기 좋은 젊은 교육도시

일상이 드라마가 되는 문화·예술·관광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경제도시

관광도시 광양  
크라우드투어 방문하세요  
gr.gwangyang.go.kr/

광양시